

# 원성웅 목사, 1인 시위… “낙태 합법화, 국가적 저주 초래할 것”

3일 아침 국회 앞에서 시위하며 법안 철회 요구

‘악물 낙태 허용’과 ‘무제한 낙태’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거리로 나섰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이날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교계와 시민사회에 거센 반발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발의 없이 악물나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국회 앞에서 “악물나태는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죽이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태여연이 주최한 이날 1인 시위에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목교회 원로)이 나섰다. 그는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목회자로서 만사나태 합법화 시도를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는 6주면 심장박동이 들리고 10주가 되면 사람의 형태를 갖추며, 22주에는 조산해도 생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생명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제거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상황 속에서 만사나태에 보험 적용까지 검토되는 현실을 지적하자



“생명 경시 풍조 심각하다!” 1인 시위에 나선 원성웅 목사의 모습. ©노형구 기자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악물나태 도입을 촉구하면서 “2019년 현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한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사실상 비범죄화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는 “2019년 현재 결정은 낙태죄 전체를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전면 비범죄화한 것이 아니라, 형법 조문 중 특정 부분만을 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당시 ‘임신 초기 기간’과 ‘여성 자기결정권’



(왼쪽부터) 제양규 교수, 안석문 목사, 원성웅 목사, 이찬영 전도사, 원정하 선교사, 서윤화 목사. ©노형구 기자

에 대한 입법적 고려를 국회에 요구했을 뿐이지, 낙태 전 기간을 포괄해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임신 중·후기 낙태, 만삭 낙태, 악물나태 등은 현재 결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물나태가 안전하다는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 조사에서도 악물나태 경험자의 70%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 부작용과 악물나태 등은 매우 위험하다”며 “태아여성국민연합은 법 개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혁 목사(더라이프)는 “악물나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교회

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라면 진리를 양보 없이 선포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교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3만 명의 아이가 낙태되는 상황을 보며 생명을 더욱 쉽게 죽이자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을 이유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대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강간 임신은 낙태 사유의 0.9%에 불과하다”며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해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형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원 선교사는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저출산 정책을 내걸면서 태아생명을 죽이는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모순이다.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최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생명 경시 사회화를 막기 위해 교계와 시민과 연대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방송의 공정한 심의 대신 차별금지라니, 어불성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이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방심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잘못되거나 편향된 방송물을 바로잡는 공정성 심의”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기능을 삭제하는 대신 “동반자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방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존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인종·민족·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변경하여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금 힘센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와 법률 개정으로 촘촘하게 엑자별의 그 물망을 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공정성 심의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또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개정안의 설명에 대해,

“힘이 세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방송 현실에 대해 “대형 공영방송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특정 정파에 치우침과 솔림 현상이 혼자하다”고 지적하며, 임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송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이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비상계업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 판문점에서 ‘남북평화 통일기도회’ 열린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 공동 주최



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이태희 목사(총재·설교), 장사무엘 목사(상임대회장·행운사), 강복렬 목사(대회장·격려사), 김현중 목사(준비위원장), 박정운 목사(사회), 전영규 목사(축사) 등이 참여한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측은 “한반도를 넘어 8천만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다시 밝아지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2027년 동안 전국 순회 기도회, 통일선교 포럼, 해외 연합기도회 등 장기적인 ‘민족 복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판문점 기도회가 그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밸브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리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신 기회 없습니다

**분양 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